

김현미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속도감 있게 시행”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 강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현장 근로자를 비롯하여 건설업계, 타워크레인 임대업계, 검사기관 등에서 참석했으며,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가는 한편, 현장 근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용인 물류센터와 평택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전국 500개소 현장 합동 일제점검을 비롯하여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 12.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27.(수) 10:00~11:00 /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
- 참석자: 총 14명
 - 국토부(4): 장관님, 건설정책국장, 건설산업과장, 건설안전과장
 - 건설 및 임대업계(4): 장철국(LH 안전방재단장), 이승우(삼성물산 팀장), 김충권(건설협회 실장), 한상길(타워크레인협동조합장)
 - 현장 근로자(2): 정희운(한노총 설해체위원장), 김성점(조종사노동조합)
 - 검사기관(1): 강신준(한국산업안전 전무)
 - 전문가(3): 박종국(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박광배(건설정책연구원), 이명구(을지대학교 교수)

□ 주요 논의사항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1.16) 보완 및 개선방향
- 타워크레인 추가 안전관리 강화대책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방안

□ 세부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분	인사말씀	장관님
10:05~10:10	5분	중대재해 예방대책(11.16) 및 추가 안전관리 강화대책 설명	건설산업과장
10:10~10:55	45분	회 의	
10:55~11:00	5분	마무리말씀	장관님